

나주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내 재지정 총력

내년 3월 지정 기간 만료...市·한전, 입주 기업 간담회 대책 모색 세금 감면·우선구매 혜택 사라져 투자 저조·공장 가동률 부진

나주시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만료 기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재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나주호텔에서 위광환 나주시장, 손금주 국회의원, 김중갑 한전사장, 이남 나주혁신산단 협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제도는 산업 생산이 낙후한 산단을 지정해 세제·자금·판로 등 특례를 지원해 기업 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3월 13일 나주일반산

단과 혁신산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제한경쟁입찰 및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한전 우선구매 혜택 ▲융자지원 및 보증 우대 등 입주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오는 2020년 3월 12일에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신규 투자 저조, 투자 협약 업체 투자 결정 보류, 공장 가동률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전에서 우선구매 혜택을 받는 입주기업은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종료되면 한전의 발주물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 피해가 우려된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나주호텔에서 나주 혁신산단 입주업체 간담회를 갖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나주시 제공>

이남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연내 조기 확정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전남도,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혁신산단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 ▲한전 발주물량 확대 ▲한전, 전남도, 나주시, 산단협의회 4

자간 소통창구 마련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시는 한전, 손금주 의원 등은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과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 건의 방안 등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수차례 광주전남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방문해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 및 입주기업의 경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연내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건의하고 있다.

위광환 나주시 부시장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내년 3월 12일로 예정된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 등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경영상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며 "기업체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 '일하는 방식 혁신' 모델 구축 연구용역 보고회

2023년까지 17개 과제 추진

나주시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한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이화실에서 강인규 시장을 비롯해 위광환 부시장, 국·소·실 간부 공무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나주시 혁신모델 구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최종 용역 발표와 함께 나주시 공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체계 및 연차별 로드맵을 점검하는 의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은 ▲낮은 업무 관행체계 ▲업무 프로세스 개선 ▲소통과 토론을 통한 효율적 협업 추진 등 나주시 공직 사회 업무 생산성 및 창의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까지 '함께하는 변화, 모두가 행복한 혁신'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혁신역량 배양', '혁신전략 수립', '혁신시스템 구축' 및 17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전 공직자 공감대 형성과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7대 실행과제를 우선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관련 ▲파급효과 큰 과제 우선 추진 ▲17개 세부 실행과제 적기 추진 ▲일하는 공간 변화 시범 도입 ▲선진 지자체, 기관 벤치마킹 등을 주문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균형위 생활SOC 공모 나주시 가족센터·주차타워 건립 선정

국비 39억 확보...송월동에 건립

나주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사업에 '가족센터를 품은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나주시는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주관하는 생활SOC사업에 '가족센터를 품은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3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SOC란 보육·의료·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시민의 일상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지칭한다.

균형위는 지난 7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시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송월동 1099-2(3)번지 일대 시유지 1816㎡에 국비포함 총 80억6600만원을 투입해 지상 5층 규모(연면적 7378㎡) 나주시 가족센터와 주차타워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물 1,2층에 들어설 나주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소통·교류 공간, 상담실, 교육실 등 돌봄과 교육, 이웃 간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운영된다. 또 주차타워는 총 170면을 조성해 시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센터와 주차타워 조성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욕구 해소는 물론, 시청사 주변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초 생활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신규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아빠와 함께 추억 쌓기 '나주 아자캠프'

에코왕곡농촌체험마을서 22 가족 참여 다양한 체험

나주시는 지난 19일 왕곡면 소재 에코왕곡 농촌체험마을에서 부자(父子)가 함께하는 '나주 아자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아자캠프는 2019년 신규시책사업으로 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아빠)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써 육아에 대한 아빠의 역할 인식과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가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22개 가족 팀이 참가한 캠프는 '아빠와 자녀의 힘을 북돋아 주자'라는 주제로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화목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소통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미꾸라지 잡기 체험 후 이를 활용한 요리활동, 배나무를 활용한 미니정원 만들기, 가족사랑 편지쓰기 등을 함께 하며 부자간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캠프 참가자 박 모(38·빛가람동)씨는 "첫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물량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흐뭇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행복한 가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내에도 시행할 아자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세계한인무역협회 호남본부 유치 '물꼬'

강인규 나주시장 美서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

나주시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월드옥타) 호남본부 유치를 위한 '물꼬'를 댔다.

나주시에 따르면 강인규 시장은 최근 미국 현지에서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을 비롯한 이인석(주)미르산업개발 대표와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월드옥타는 세계 73개국 144개 지회의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나주시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에너지, 농·생명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월드옥타 호남본부가 들어설 예정인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KTX나주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혁신창업타운 조성', '에너지체험·스포츠파크 조성',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협력지구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하게 된다.

나주시는 우선사업 시행대상자로 미르산업개발을 선정하고 지난 4월 197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상호 공간·기능적으로 연계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강인규(오른쪽) 나주시장이 지난 17일 미국 현지에서 하용화(가운데)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이인석 미르산업개발 대표와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월드옥타의 풍부한 경제적 네트워크와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시를 비롯한 호남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된 역사적이고 뜻깊은 성과"라며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 지구 내 월드옥타 호남본부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